

‘운동권 대학생들의 사상을 개조하라’

—강제징집·녹화사업의 실태

이 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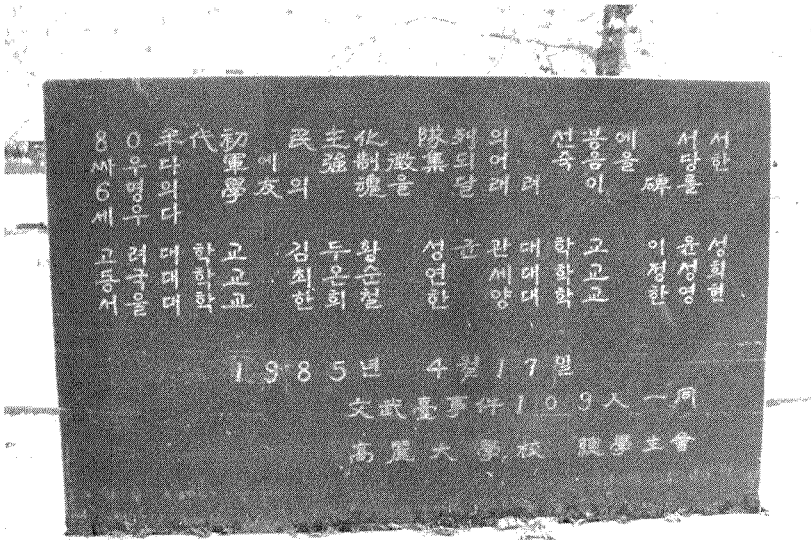
강제징집 희생자 진흔비

1985년 4월 16일 오후 한 대의 트럭이 고려대학교 정문을 통과하고 있었다. 트럭 뒤 짐칸에는 무언가 시커먼 물체가 가마니에 싸인 채 실려 있었다. 비석이었다. 정문에서 잠시 수위와 실랑이를 하던 트럭은 그대로 정문을 통과하여 학생회관 앞에 차를 세웠고, 트럭이 서자 바로 십여 명의 학생들이 몰려나와 트럭에 실려 있던 비석과 상석을 내려 여러 명이 킁킁거리며 학생회관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고려대학교 학생회관 앞에는 느닷없이 곡괭이와 삽을 든 학생들이 나와 민주광장의 한가운데를 파기 시작하였다. 여기저기 예비군복을 입은 학생들도 눈에 띄었다. 곧바로 교수와 교직원들이 몰려와 학생들을 제지하였지만 학생들은 이에 아랑곳 않고 교대를 해가며 계속 땅을 팠다. 교직원과 학생들이 실랑이를 하는 사이 전날 학생회관으로 조심스럽게 옮겨졌던 비석이 다시 민주광장 가운데로 옮겨져 왔고 학생들은 땅을 판 자리에 사방 1미터 남짓의 두터운 대리석 상석을 놓아 자리를 잡고 미리 깎아 놓은 대리석의 흠에 까만 오석으로 만든 비석을 맞추어 세웠다. 비석의 전면

에는 ‘강제징집희생자진혼비 強制徵集犧牲者鎮魂碑’라는 비명 碑銘과 함께 “민주 民主의 불꽃, 처절히 꺼져간 여린 영혼 靈魂이여, 이제 이 땅에 하나 둘을 세워 부활 復活을 선언 宣言하노니, 우리의 함성 喊聲, 거역 拒逆할 수 없는 역사가 되어, 해방 解放의 새날을 증언 證言하리라”라는 비문 碑文이 적혀 있었다. 비석의 뒤편에는 “80년대 초 민주화 대열의 선봉에 서서 싸우다 군에 강제 징집되어 죽음을 당한 6명의 학우의 혼을 달래려 이 비를 세우다”라는 글 밑으로 “고려대학교 김두황, 성균관대학교 이운성, 동국대학교 최운순, 연세대학교 정성희, 서울대학교 한희철, 한양대학교 한영현” 등 강제징집되었다가 군에서 사망한 6명 학우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고, 그 밑으로 ‘문무대사건 109인 일동’,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라고 설립주체가 명시되어 있었다. 순간 예비군복을 입은 학생들의 얼굴에는 비장감과 회한이 서리는 듯했다. 그들은 1981년 11월 9일 고려대학교 ‘대학생병영집체훈련’ 중 발생한 세칭 ‘문무대사건’으로 109명이 한꺼번에 징계(제적 19명, 무기정학 1명, 직권휴학 89명)를 당하고 강제징집되었다가 최전방 부대에 배치되어 녹화사업을 받고 제대한 문무대 109인회의 회원들이었다.

민주광장 한가운데서 녹화사업의 아픈 역사를 증언하던 ‘진혼비’는 4개월이 채 안된 그해 7월 23일 학생들이 뚝한 여름방학을 틈타 강제 철거되었고, 킁킁한 박물관 지하에 유치되어 버렸다. 박물관 지하에 유치된 진혼비와 함께 그들이 왜 군에 가서 죽어 돌아와야만 했는지도 암흑 속에 유치되는 순간이었다. 많은 학생들이 격렬히 항의를 하였고 당시 고려대학교 신방과의 윤용 교수도 진혼비를 철거해 간 자리에 앉아 한여름 땀야별을 그대로 맞아 가며 독서를 하는 것으로 항의를 하기도 하였다. 그 후 진혼비를 제자리에 돌려놓으라는 교수와 학생들의 끝없는 요구와 투쟁 끝에 몇 년의 세월을 지내고서야 진혼비는 다시 민주광장에 돌아올 수 있었다. 비석의 온몸에 철거 과정에서 깨지고 부서진 상처를 남긴 채...



강제징집 희생자 진혼비

6명의 꽃다운 생명을 앗아간 녹화사업

이들 6명이 누구길래 이들의 영혼을 달래는 진혼비조차 제자리를 지킬 수 없었는가? 이들 6명의 죽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80년대 초 군사독재 시절 초법적으로 자행되었던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에 대해 말해야만 한다. 운동권 학생들을 학교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강제로 징집을 하고, 군에 입대한 이들 강제징집자들의 사상을 개조하기 위해 보안사령부에서 조직적으로 자행한 녹화사업이 결국 6명의 젊은이들을 처절한 죽음으로 몰고 가 버린 것이다. 또한 살아 돌아온 많은 강제징집자들에게도 강제징집과 녹화사업 과정에서의 굴종감과 이에 대한 자괴감으로 가슴 한구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들을 남겨 놓았다.

사망한 6명 중 서울대학교 한희철은 강제징집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입대한 경우였다. 그는 군 복무 중 휴가기간에 수배자 도피를 도왔다는 이유로 보안대에 연행되어 혹독한 조사를 받은 직후, 자신이 당한 고초와 그 고초를

이기지 못하고 동료들의 이름을 대어야 했던 것에 대한 자책, 그래서 보안대 조사실에서 몇 번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하였다는 가슴 아픈 내용을 적은 '성남 YMCA 총무에게 보내는 글'과 유서 등을 비밀리에 군 동료에게 남기고 자신이 초병근무를 서던 근무호에서 엠16 소총을 가슴에 발사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한희철을 제외한 5명은 시위 및 학생운동과 관련하여 경찰에 연행된 후 강제징집되었고, 강제징집된 후 군부대에 혼자 고립되어 보안사와 소속 부대 지휘체계를 통한 감시 속에 녹화사업을 받으며 군 생활을 하다가 전방의 이름 모를 골짜기에서, 혹은 고지의 참호 속에서, 혹은 보안대 부대 마당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다. 이들 중에는 한희철과 같이 온 몸으로 항거하여 스스로 목숨을 던진 이들도 있고, 타살의 의혹이 있는 죽음도 있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죽음이든 이들의 죽음 뒤에는 '강제징집'이라는 초법적 탄압과 '녹화사업'이라는 반인간적 사상개조사업의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강제징집의 시행배경

이들이 죽음을 맞게 된 최초의 시발점은 강제징집이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갔다 오는 군대이지만 강제징집은 어느 날 갑자기 본인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심지어 가족에게조차 군에 간다는 인사도 못하고, 그 혼한 송별 회조차 없이 군대로 끌려가는 것이다. 자신의 인생계획과는 무관하게 주변 환경이 통째로 바뀌어지고, 게다가 입대하는 날부터 '테모하다 군대 끌려온 놈'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제대할 때까지 그 꼬리표를 달고 특별관리를 받아야 했다. 휴가도 아닌데 며칠씩 어딘가(보안대)를 갔다 오고, 수시로 지휘관들로부터 특별대우(특별관리)를 받는 이상한 놈이라는 동료병사들의 따가운 시선에 대한 심적 부담 및 보내고 받는 모든 편지에 대한 검열 등 강제징집은 정상적인 군 입대와 달리 그 자체로 한 인간에게 매우 심대한 불안감과

충격을 주는 것이었다.

1979년 12·12쿠테타와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 및 광주민중항쟁 무력진압 등 내란행위를 통해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군사정권에 대한 국내외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게 되자 자신의 가장 강력한 반대 세력인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취약한 정권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소위 극렬 운동권 학생들을 학교로부터 격리시키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강제징집' 과 '녹화사업' 이다. 군사정권은 운동권 학생들을 감옥에 보내는 대신 강제로 군에 입대시킴으로써 양심수의 숫자를 줄여 국내외 비난의 화살을 피하는 한편, 운동권 학생들을 3년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생운동을 약화시켰다. 여기에 녹화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사상을 순화하고 이들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학생운동조직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등, 일석삼조의 묘안을 찾아낸 것이다.

강제징집의 제도화 - 지도휴학제의 신설

강제징집이 처음 도입된 것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1년 위수령을 발동하고부터이다. 이후 긴급조치 위반자 등을 그때그때 강제징집시키다가, 1979년 말 서울대의 학칙에 지도휴학 조항을 신설한 것을 시작으로 각 대학이 공통적으로 학칙을 개정하여 지도휴학 조항을 삽입하면서부터 광범위하고 일상적인 강제징집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지도휴학은 문제학생의 경우 학생 본인의 의사나 객관적 판단기준 없이 총장의 직권으로 휴학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던 것으로, 대학에 따라 지도휴학, 권고휴학, 강제휴학 등의 명칭으로 시행되었다. 군 입대 대상인 학생이 제적 또는 휴학처분을 받을 경우 법에 의한 징집연기 사유가 소멸하게 되고, 그 다음엔 병역법 제19조,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징집조치가 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강제징집을 하는 경우 병역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병역법 시행령 제19조, 신체검사

통지서의 20일 전 송달 및 입영영장의 30일 전 송달)를 완전히 무시하였고, 군 입대를 하면 통상 보충대 등을 며칠씩 거치며 신체검사를 다시 받고 부대배치를 받는 것과 달리 강제징집자의 경우에는 입영 당일 최전방 GOP부대에 배속을 받아 그날로 전방 사단 훈련소에 입소토록 하였다.

강제징집의 규모

1988년 국회 5공화국비리조사특별위원회(5공 특위)에 제출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1981년 22명, 1982년 67명, 1983년 358명을 강제징집하였고, 학교별로는 서울대학교 88명, 성균관대학교 74명, 연세대학교 63명, 고려대학교 58명 등 34개 대학교에서 총 447명을 강제징집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1980년 11월 고려대학교의 소위 문무대사건 관련자 109명과, 비슷한 이유로 외국어대, 서울대 등에서 수십 명씩 강제징집된 인원, 그 외에 서울대 무림, 학림 사건으로 강제징집된 인원 등은 447명의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 시기의 실제 강제징집자는 1,100여 명(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도자료)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강제징집 과정에는 당시 문교부와 안기부, 보안사, 국방부, 치안본부, 검찰, 병무청 등이 조직적으로 관여하여 역할을 분담하였다.

특수학적 변동자의 낙인

군은 강제징집자의 병적기록표에 '특수학번' 아니면 '특수지원'이라는 빨간 스템프 도장을 찍어 입대하는 순간부터 문제 사병으로 분류하여 특별관리를 하였다. 그 때문에 강제징집자들은 훈련소에서부터 자대배치를 받은 후까지 훈련소 조교나 고참병들로부터 "너 데모하다 온 놈이지. 니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뺑뺑이쳤는지 알아" 하며 이유없이 몇 대씩 쥐어박히거나 얼차려를 당하곤 했다. '특수학번' 과 '특수지원' 은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특수학번' 이라고 표시하는 경우는 제적, 지도휴학 등 학교의 징계절

차를 거쳐 강제징집되는 경우에 사용하였고(사후적으로 징계조치를 한 경우도 있음), '특수지원'은 시위나 예비검속으로 경찰서 등에 연행하여 바로 강제징집을 하는 경우에 사용하였다. 시위나 예비검속으로 경찰서 등에 연행이 되면 학생운동이나 시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친 후 신병처리를 할 때에 수사관이 본인 또는 보호자를 불러 '감옥을 갈 것이냐, 군대를 갈 것이냐'의 선택을 강요하거나, 검찰 공안부의 수사지휘를 받을 때 군입대조치 결정이 내려진다. 이 경우 수사관이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자원입대서를 쓰도록 하여 곧바로 입영 조치하게 되는데 이때는 경찰서에서 바로 군부대로 이첩되어 강제징집되는 것이었다. 이는 육군 지원병제도를 학원탄압을 위한 강제징집의 도구로 악용한 경우이다. 강제징집의 경우 신체검사 결과나 가족관계 등에 의해 병역면제 대상자이거나 보충역 대상자라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현역 입영 판정을 하여 입대를 시켰으며, 숙전숙결로 입대를 시키다 보니 심지어는 부모들이 자식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다가 나중에 군부대에서 되돌려 보낸 옷을 보고서야 군에 입대한 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빨간 물을 빼고 파란 물을 들여라-녹화사업의 시행

초법적으로 자행된 강제징집은 급기야 인간의 양심과 사상까지 강제로 뜯어 바꾸고자 하는 녹화사업으로 연결된다. 군 당국은 강제징집자의 급격한 증가로 군 내부에서 불순조직 구성 또는 친북적인 이념이 주위 장병들에게 확산될 것이 우려됨에 따라 순화 차원의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982년 9월부터 1984년 11월까지 강제징집자 447명 중 총 256명에 대해서 '특별정훈교육'을 실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특별정훈교육이라는 것이 바로 '녹화사업'을 말하는 것이었으며, 당시 강제징집자들에게도 특별정훈교육이라는 말보다는 '순화교육' 또는 '녹화사업'이라는 말로 통용되었다. 또한 군이 256명에 대해 녹화사업(특별정훈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하나 강제징집자의 숫자를 반 이상으로 줄여 발표한 점 등으로 보아 실제 녹화사업을

시행한 강제징집자의 숫자는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녹화사업의 본부-보안사령부 심사과

녹화사업 대상인 강제징집자들은 모두 보안사의 특별관리대상자로 분류되어 일선부대 지휘계통을 통한 일상적인 관찰과 보고가 이루어졌다. 또한 수시로 관찰 보안대 요원들이 연대별 또는 대대별로 이들 학병자들이 근무하는 부대를 순회하며 주변 사병들을 통해 강제징집자의 언행을 체크하거나, 관물대를 뒤져 수상한 점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등 직접 관리도 함께 행했다. 특수학병자들에 대해서는 휴가를 갈 때에도 그 사병의 집을 관찰하는 지역보안대로 휴가 사실을 통보하고 업무를 이첩하는 등, 군 복무기간 전체를 통하여 학적변동자에 대한 감시의 눈을 떼지 않았다. 실제로 어느 학적변동자의 경우 말년 휴가를 다녀오면서 애초 일정을 변경하여 보고된 날짜보다 보름 정도 먼저 휴가를 갔다가 복귀하였는데, 이것이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이 사병의 휴가는 군 지휘체계를 통해 정상적으로 휴가명령을 바꾸어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럼에도 보안대에서는 휴가날짜 변경사실이 보안대에 통보되지 않아 특별관리대상에 대한 감시에 보름 동안의 공백이 생겼으며 크게 문제를 삼았고, 해당 지휘관에 대한 엄중 문책 등의 이야기가 오갔다. 이에 당황한 해당부대 지휘관 관찰보안부대 실무진에서는 결국 이 병사에게 이미 갔다 온 휴가는 없었던 것으로 하고 애초에 보안사에 보고된 날짜에 맞추어 다시 휴가를 보내기로 결정, 휴가를 마치고 막 복귀한 이 병사에게 다시 한 번 휴가를 갈 것을 종용하며 중대장의 옷을 다려서 입히는 등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하면 녹화사업은 1982년 초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이 보안사령부 최 모 처장에게 '운동권 세력에 대해 제대로 대처를 못한다'는 질책을 하고 학생운동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여 녹화사업계획이 최초로 입안되고 실행되었다고 한다.

녹화사업 시행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1982년 7월 보안사 내에 대좌경의식화 전담과가 설치되었고, 장교, 하사관, 군무원 등 15명 가량의 실무요원을 선발하여 배치하였다. 이들은 심사과 신설 준비업무를 하면서 순화교육을 병행하였는데, 심사관 강제징집자의 의식화 정도를 파악하고 의식화 정도에 따라 녹화사업(순화교육)을 실시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이후 이러한 업무 때문에 '심사과' 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된다.

그 후 여성이 포함된 30여 명의 직원이 추가로 선발되었으며 이들은 1개월 가량 좌경이론 비판, 녹화사업 실무, 정보획득 요령, 정보망원 활용요령 등 교육을 받고 실무에 투입되었다. 대좌경의식전담과(공작과)가 '심사과'로 명칭이 바뀌고, 1982년 9월 보안사 서 모 중령을 심사과장으로 발탁해 1982년 9월에서 12월까지 4개월간 32명의 강제징집자를 대상으로 순화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는데, 시범실시 결과 순화교육의 효과가 좋다는 자체 평가를 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한 후 대대적인 녹화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보안사는 녹화사업 본격착수 전에 심사과의 진용을 재정비하였는데, 그 이유는 심사과 요원으로 선발한 하사관과 군무원들 중 다수가 강제징집자들과의 대화에서 논리적으로 뒤질 뿐 아니라 순화교육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였기 때문이었다. 결국 육해공군에 근무하고 있던 명문대학 출신의 학사장교나 고시출신 장교 중 20여 명을 선발, 2개월 정도의 교육과 훈련을 시킨 후 심사장교로 임명, 보안사령부 심사과와 지역 보안부대에 심사장교로 배치하였다.

강제징집자들은 A, B, C급으로 분류 관리되었는데, 이 중 A급에 대해서는 사단 보안부대에서 일주일 정도의 순화교육을 거쳐 보안사령부 심사과 분실 등에서 직접 녹화사업을 실시하였고, B급에 대해서는 사단 보안부대에서 녹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C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동향관찰을 진행하였고 진행결과는 각각의 등급별로 관찰 보고서 및 순화교육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안사령부로 보고되었다. 사단 보안대에서 녹화사업(순화교육)을 받는

경우 보안대 내에서 숙식을 하며 보통 1주일 정도 순화교육을 받았는데, 보안대 부관 등이 지프차를 타고 직접 교육대상자의 부대를 방문, 대대장 등에게 대상자를 보안대로 데리고 간다는 통보를 하고, 동료 부대원들에게는 사단 교육을 들어간다는 등 적당히 설명하도록 한 후에 바로 보안대로 데리고 가 녹화사업(순화교육)을 하였다.

보안대에 불려가게 되면 우선 간단한 인적사항 확인과 보안대 내 생활규칙, 주의사항 등을 알려준 후 두툼하게 쌓인 백지와 불펜을 주고 진술서(나의 성장기)를 작성케 하였다. 여기에는 성장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게 하였는데, 특히 대학교 재학 중의 활동에 대해서는 읽은 책의 제목부터 시위참가 내용, 씨클이나 학과 선후배의 이름, 역할, 특징 등을 아주 자세하게 작성하도록 강요하였다. 그리고는 이 내용을 해당 경찰서 등으로부터 이관된 개인 파일 내용과 비교하여 차이 나는 부분이 나오면 몇 번씩이고 진술서를 다시 써야 했고 이 과정에서 추궁과 가혹행위가 동반되기도 하였다. 그 과정이 끝나면 『공산주의 비판』, 전두환의 전기인 『황강에서 북악까지』, 『한민족의 용틀임』 등의 책을 읽게 한 후 독후감을 쓰도록 하였는데 이 독후감의 내용이 녹화사업(순화교육)의 시험답안지와 같은 것이었다.

녹화사업의 최종과정 - 프락치 공작

A급으로 분류된 강제징집자나, 본래의 등급과 관계없이 교육 중 특별한 상황이 발견되거나 학생운동과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강제징집자의 경우는 사단 보안대에서 바로 과천이나 을지로 등의 분실로 옮겨 필요한 정보를 캐내거나 프락치 공작에 이용하였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과천의 아파트에 마련된 '과천분실'은 주로 심사와 정보 수집을 위한 업무에 사용하였고, 을지로 진양상가 내 아파트에 마련된 '진양분실'은 프락치공작인 '활용' 업무에 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녹화사업 대상자들은 보통 월요일에 지역 보안대로부터 분

실로 인계되어 금요일까지 각종 조사와 순화교육을 받았으며, 보안대 차량을 통해 지역 보안부대에서 분실로 이동하였다. 분실에 도착하기 얼마 전부터는 눈을 가리거나 고개를 숙이게 하여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하여 분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분실에 도착해서는 간단한 인적사항을 체크하고 계급장과 명찰 등 아무것도 없는 군복으로 갈아 입혔다. 물론 조사가 시작되면서는 피조사자의 태도에 따라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고 손가락에 볼펜을 끼우고 발로 누르기, 손목과 발목을 묶은 후 그 사이에 나무를 끼워 책상에 걸쳐 매달아 놓고 발바닥을 때리는, 소위 통닭구이라고 하는 고문 방법 등을 동원하기도 하는 등, 회유와 협박, 폭행과 폭언 등의 가혹행위가 이루어졌다.

또 같은 내용을 몇 번이고 반복하여 물으면서 진술내용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잘 맞지 않거나 의심이 가면 그 부분을 집중 추궁했다. “여기서는 너 하나쯤 죽어 나가도 아무도 모른다”는 등의 협박으로 군인 신분이었던 강제징집자들에게 보안사라는 위명을 이용하여 심리적, 육체적으로 압박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강제징집자들이 말하기 어려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동료와 선후배의 이름, 역할 등 학생운동 조직과 관련한 내용을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동료 선후배의 이름을 댈 수밖에 없었던 강제징집자들은 평생 지우기 힘든 고통과 상처를 가슴에 남긴 채,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서울대 한희철도 바로 과천분실에서 구타와 고문 등을 수반한 혹독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과천분실에서 한희철이라고 주기가 새겨진 군화를 보았다는 목격자가 있으며, 사망 직후 한희철의 사체에는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에 시커멓게 줄이 간 형태의 멍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강제징집자들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캐낸 보안대는 조사 과정에서의 태도와 조사내용 등을 토대로 대상자를 선별하여 ‘활용’이라고 하는 특수공작을 진행하게 되는데, ‘활용’은 그야말로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반인간적 행위였다. ‘활용’은 강제징집자들을 회유, 협박하여 프락치 공작을 시키는 것으로, 보안대에서 녹화사업을 마친 후, 입대 전 알고 지내던 선후배 및 동료들을 접촉할 것과 그들로부터 학생운동권의 상황이나 조직정보, 시위계획 등을 파악하여 올 것을 특수임무로 주면서 휴가나 외박을 내보내 휴가복귀 후 접촉한 사람의 인적사항, 대화내용, 운동권 동향 등에 대해 보고를 받는 것이다. 녹화사업 과정에서 온갖 고초를 겪은 강제징집자들은 그 고통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군 최고의 권력기관이었던 보안사의 ‘활용(프락치 공작)’ 앞에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다. 군이라는 특수조직에 몸을 담고 있던 강제징집자들은 이러한 보안사의 ‘활용’ 과정에서 극심한 자괴감에 빠지게 되었고, 심각한 심리적 공황 상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결국 녹화사업 프락치 공작의 대표적 피해자이자 사망한 6명의 학우 중 1명인 한양대 한영현의 경우, 휴가를 마치고 귀대한 후 최전방 고지의 차가운 참호 속에서 엠16 소총을 이용하여 다 피워보지도 못한 목숨을 스스로 끊었던 것이다. 그리고 현재, 이러한 녹화사업 과정에서 타살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남기고 있는 몇몇의 죽음에 대해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강제징집되었다가 녹화사업을 받고 살아 돌아온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도 지울 수 없는 어두운 상처를 남겨 놓았다.

이제 그로부터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우리 역사의 많은 부분에서 그렇듯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아직도 그 상처를 부여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반면, 가해 당사자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그 자신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도 의식하지 못한 채 잘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제 강제징집, 녹화사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면적이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정부 차원의 사과, 가해책임자와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이법재 bj1962@hanmail.net | 고려대학교강제징집109인회 회장.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과장, 환경개발연구원 사무국장 역임. 문무대 사건으로 고려대학교에서 제적, 강제징집됨.